



사회 활동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와 선교

(A Reformed Understanding of Social Activities and Mission)

이 복 수 ■ 고신대학교 선교언어학과 교수

목 차

I. 서 론

II. 개인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주의의 한편 강조에 의한 영향

III. 한편 강조를 지배한 정신성

- A. 인간을 영과 육으로 이원화하는 이해
- B. 내세는 영광스럽고 중요하나 현세는 속되고 무의미하다는 이해
- C. 개인에 대한 강조로 단체의 책임에 소홀한 이해

IV. 개혁주의는 모든 면에서 복음주의와 일치하는가?

V.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주의 정신성

- A. 영혼과 육체로 된 인간의 전인적 삶에 대한 강조
- B.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균형있는 가르침
- C.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主) 되심에 대한 강조

VI. 결 론

참고문헌

Copyright © 2015 by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ISBN 978-89-955-0000-0

I. 서론

1950년대 이후의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은 사회개선을 그것의 주된 관심으로 삼았다.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에 발생한 해방신학의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우러져 인권운동이 첨가된 사회개선을 기독교 선교의 목적으로 부각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 구원에 강조를 두는 복음주의 입장으로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그러한 입장에 제동과 비평을 더해 왔다. 사회개선과 인권해방을 기독교 선교의 목적으로 삼는 입장은 분명히 영적인 관심을 상실한 한편 복음주의 입장은,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외면하는 지나친 보수주의의 경향을 띠어 이것 역시 바른 균형에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수주의의 이러한 경향은 자칫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기독 신자들을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나게 하며, 세상에서 은둔자로 사는 삶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선교현장에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일을 지나치게 이원화하여 복음전도의 일 외에는 늘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영혼에 대한 한편만의 강조는 기독교 선교사역에 사회봉사를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러한 한편 강조의 신학적 정서에 머물지 않는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삶을 접목시킨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의 이해 아래 있는 크리스천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황금률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기독 신자와 사회활동은 삶을 위한 방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과 직결된다. 이러한 이해는 기독 신자로서 하여금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더욱이 성경은 이러한 이해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패와 어둠이 짙어지는 사회 속에서 소리 없이 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의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지켜 왔는



가? 범위를 좁혀서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어떠했는가? 누가 감히 긍정적인 대답을 내릴 수 있을까? 1960년대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문제의 소용돌이가 심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에 소극적인 전통을 고수하여 오히려 아무런 외침도 제대로 발하지 못한 채 마치 교회가 불의한 정치권과 야합하는 인상마저 일으켰다. 따라서 교회 내의 젊은 지성인들 중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인 책임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으며, 교회 밖의 젊은이들은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음을 느꼈다. 물론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표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조리와 혼란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바른 삶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 기독교 선교의 효과를 감하는 것만 아니라 선교사역 자체의 위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역을 펴지 못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지적할 것인가?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원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사회적인 관심과 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서 혹은 정신성(mental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위에 놓여 있는 원인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하여 개혁주의 정신성을 가지지 못했던 요소들을 지적하여 문제점 자체를 파악하며 사회문제에 대하여 개혁주의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정신성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사회문제에 바르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인 관심에 바른 균형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기서 먼저 개혁교회마저도 사회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났던 이유들을 고찰한다.



II. 개인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주의의 한편 강조에 의한 영향

독일의 복음주의 선교학자 피터 바이엘하우스(Peter Beyerhaus)에 의하면 복음주의는 다음과 같은 여섯 형태로 세분된다.¹⁾ 첫째는, 신 복음주의자들(New Evangelicals)로 불리는 정향으로서 빌리 그레이엄이 대표적인 인물로 지적된다. 이 그룹은 모든 복음주의의 인력을 연합시키려고 노력한다. 둘째로는, 첫번 그룹과 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격리주의 근본주의자들(Separatist Fundamentalists)이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칼 맥인타이어(Carl McIntire)인데 특별히 기독교 국제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와 같은 조직과 함께 알려지고 있다. 셋째 그룹은, 고백적 복음주의자들(Confessional Evangelicals)로서 바이엘하우스 자신이 여기에 속한다. 네 번째는, 성령과 및 은사파로 불리는 그룹 안에서 보여지는 복음주의자들이다. 다섯 번째는, 급진적 복음주의자들(Radical Evangelicals) 그룹인데, 여기에는 남미 신학자들인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레네 파딜라(Rene Padilla)와 오랄도 코스타스(Orlando Costas)가 주도적이다. 특별히 이들의 강조에는 성서적 근거에 따라서 사회 정치적 관여의 필요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에큐메니컬 복음주의자들(Ecumenical Evangelicals)로 불린다. 여기에 속한 학자는 페스토 키벤저(Festo Kivengere)인데 에큐메니컬 운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복음주의란 명칭 아래 있는 신학자들 중에는 개인 영혼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반대의 극단으로 에큐메니컬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여 사회문제를 외면하는 입장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입장들이 함께 복음주의라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신학자 우다 센 박사는 복음주의란 말이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를 12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1) 16세기 종교개혁의 근본정신, 즉 루터나 칼빈의 신학 전통을 계

1) Bosch, D. J.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 John Knox Press), 1980, p.30.



승하는 의미; (2)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의미; (3) 구라파에서는 영국의 비국교도나 청교도 및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 부흥운동, 대각성운동 등을 의미; (4) 영국 국교회 내에서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는 교회나 신자를 의미; (5)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있는 자들을 복음주의로 부르는 의미; (6)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의미; (7) 1869년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YMCA대회에서 내린 정의로 성경을 유일무이한 규범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을 의미; (8) 일부 에큐메니컬 지도자들 중에서 분리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의미; (9) 완고하고 편협한 근본주의적 신학을 의미; (10)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 기독교와 반대되는 정통파 기독교를 의미; (11)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바르트주의 신학을 복음주의로 부름; (12)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립하여 성경의 기본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전도에 열정적인 신앙을 의미.²⁾

웨버(R. Weber) 역시 복음주의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함을 염려하면서 복음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는데,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세대주의 복음주의, 보수적 복음주의, 무교회적 복음주의, 개혁파 복음주의, 재세례파 복음주의, 웨슬레파 복음주의, 성결파 복음주의, 오순절파 복음주의, 성령은사과 복음주의, 흑인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 급진적 복음주의, 전통적 복음주의 등을 포함시켰다.³⁾

따라서 오늘에 와서 복음주의란 꽤나 넓은 사조들을 포함하는 총칭적 명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의 특징은 개인 영혼에 대한 강조와 복음전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성경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복음주의의 전통적인 강조점들 중에 개인 영혼만을 위한 관심은 크리스천의 사회활동에 대한 바른 균형을 잃게 한 것도 솔직히 시인해야 할 요소이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 편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전호진, "선교적 관점에서 본 복음주의 역사와 선교운동", 『성경과 신학』(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pp. 149~150.

3) Weber, R., 권혁봉 역, 『복음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pp. 36~39.



122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복음주의 교회가 지니는 이러한 경향들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에 의하면, 복음주의는 사회구조의 부조리에 대하여 - 인종차별, 불규칙한 날품팔이 노동, 정치 및 경제적 착취 등 -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분야에서 그들의 과묵 때문에 흔히 복음주의자들은 현재의 사회 정치적 질서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⁴⁾ 헨리(C.F.H. Henry) 역시 많은 보수주의 교회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무시하고 오직 교회 공동체의 평화만을 호소했다고 지적한다.⁵⁾

남아공의 포츠허스트룸(Potchefstroom)에 있는 종교개혁 연구소(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에 속하여 여러 저서들을 펴낸 포울러(S. Fowler)는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의 3가지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⁶⁾ 먼저는, 사회복음(the Social Gospel)의 함정에 빠지는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복음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만들어 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무엇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선적인 관심은 성령의 중생시키심에 의하여 개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개인 영혼의 구원에 둔다. 이러한 개인 구원은 영원한 문제로서 내적이며, 영적이고, 개인적인 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의 사회 개입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부수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현실적인 문제로서 복음에 비하여 늘 이차적인 중요성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견해의 뛰어난 해석가는 캐슬우드(H. F. R. Catherwood)로서 그에 의하면 안수 받은 성직자들은 사회 개혁의 프로그램에 개입되어지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성직자가 불확실하고도 변하는 현실적인 일들에 해당하는 사회문제에 개입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훈련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말한다.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의 다른 한 특징은, 사회적인 활동은 오직 개인들로서 기독교인의 활동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활동

4) Bosch, D. J., *op.cit.*, pp. 33f.

5) Henry, C. F. H., *Aspects of Christian Soci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1964), p. 123.

6) Fowler, S.,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Society*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88), pp. 44~45.

은 오직 기독교인 개인에 속하는 일이기에 교회는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적인 일들을 잘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바를 교회나,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과 더불어 행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천 사회활동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크리스천이 시민으로서 사회에 개입되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의 또 다른 한 특징은, 사회문제를 위한 기독교 신자들의 분명한 기여는 하나의 윤리적인 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사회봉사는 윤리적인 기여에 머물 뿐이며,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사회활동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지적들에 의하면 사회활동에 대한 복음주의의 이해에는 소극적인 요소가 없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보수교회들도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손봉호 교수는 교회의 사회참여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보수교회들이 보여 왔던 자세에 대하여 비판하여 말하기를,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힘쓰고 사회개혁과 사회 전체의 구원에 무관심했다”⁷⁾고 말한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 사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사회-정치-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맹렬하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⁸⁾ 따라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개인 영혼의 구원 위에 한편 강조(One-sided emphasis)를 취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러한 복음주의의 입장에 반대하여 교회의 관심을 오직 사회 개선으로만 몰아가는 경향들이 일어난 원인들을 고찰해 보아도 복음주의가 한편 강조에 머물렀던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4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운동이나 18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사회 복음(Social Gospel)은 모두 개인영혼 구원 혹은 내세에서의 영생을 강조하는 한편

7)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 지성」(서울 : 성광문화사, 1978), p. 380.

8) Hesselink, J.,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Grand Rapids: The Reformed Church Press, 1994) (최덕성 역, 「개혁주의 전통」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pp. 96f).



124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강조에 거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사회복음의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가장 탁월했던 라우셴부쉬(Rauschenbusch)는 다음과 같이 영생에만 강조를 두는 신학을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경향을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영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배후로 밀려났고 그와 더불어 기독교의 사회적 잠재력 역시 대부분 사라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사회적 변혁을 포함한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이었다.”⁹⁾ 라우셴부쉬는 현실 세계의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그의 이해에는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의 이러한 이해는 당시의 교회가 사회문제를 외면하는 강한 경향으로 나타났기에 그러한 경향을 거부하여 반대 극단인 사회복음을 주창했던 것이다.

현대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역시 기독교 선교의 초점을 사회개선에 두는 방향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경향 역시 교회가 사회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경향에 반기를 든 현상이다.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이 사회개선을 선교의 목적으로 강조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세계의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발생한 빈곤의 문제에 선교신학의 방향을 돌렸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해방신학의 주된 관심사였던 인권문제에 동일한 관심을 가짐으로 해방신학과 협력관계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다.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이러한 경향은 1973에 열린 방콕대회(Bangkok Conference)가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의한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1) 구원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에 대항한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 안에 작용하며, (2) 구원은 동료 인간에 의한 정치적 억압에 대항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 안에 작용하며, (3)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소외에 대항하여 결속을 위한 투쟁 안에 작용하며, 그리고 (4) 구원은 개인적인 삶에 있는 낙망에 대항한 희망을 위한 투쟁 안에 작용한다.¹⁰⁾ 에큐메니컬 운동에 크게 기여한 에밀리오 카스트로(E. Castro) 역시 “복음화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과 관련이 있

9) Rauschenbusch, W., *Christianity and Social Crisis* (New York : Haper and Row, 1964), p.162.

10) “Salvation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Review Mission*, vol. 62, 1973, p. 2000.

다”¹¹⁾고 주장함으로써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주된 관심이 사회개선에 있음을 표명했다.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이러한 경향은 복음주의가 개인 영혼의 구원과 사회봉사에 온전한 균형을 강조하지 못한 결과와 관계가 있다. 전호진 교수에 의하면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이 사회문제의 신학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해방신학이 발생한 것까지도 보수주의의 책임임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에큐메니컬 선교가 급진주의적 정치신학으로 변질된 데는 복음주의 교회도 책임이 있다. 그것은 첫째, 칼빈주의의 개혁교회가 18세기에 일종의 신앙적 합리주의에 빠져 선교의 정열을 상실하였고, 영국의 복음주의는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선교를 시작했으나 맑스 와렌과 반덴 베르그(화란의 선교학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불순한 동기로 아프리카교회나 아시아에서 식민주의의 앞잡이라는 비평도 받았다. 순수한 동기로 선교했다는 미국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선포에서 단순한 복종으로 바뀌는 신학적 변천이 있다고 천년왕국사상이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쳐 교회의 문화적 사명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8, 9세기의 서구교회가 처음에는 선 문명, 후 복음에서, 일시 변천하였다. 이때는 그래도 성경적 선교였다. 지금은 에큐메니컬 선교의 영향으로 선 인간화, 후 복음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이것은 19세기의 신학은 개인윤리가 중시되었지만 지금은 사회윤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개혁주의교회는 해방신학이 우리 교회에 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오늘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윤리신학을 확립해야 한다.¹²⁾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역시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한편 강조로서 개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사회활동을 펼치기보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1) Castro, E., "Editorial",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64, 1975, p. 24.

12) 전호진, "에큐메니컬 운동과 선교론 비판", 「개혁신학」 제 IV집(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 신학교 1978), p. 110.



Ⅲ. 한편 강조를 지배한 정신성

개인 영혼 구원으로 기울어진 한편 강조는 우연한 발생이 아니다. 그러한 정서를 형성하고 촉진시킨 신학을 토대로 하여 확산된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신학적 토대가 형성되면서 만일에 그 이상의 어떠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정신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적 요소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강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강조를 중심의 위치에 놓으면서도 인간의 전체적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해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한편 강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을 진작시킨 정신성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A. 인간을 영과 육으로 이원화하는 이해

성경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흠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이 입식 시킨 생명으로서의 영혼이 인간의 구성 요소이다. 인간에게 있는 이 두 요소가 분리될 때에 생명체로서의 죽음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인간의 구성 요소는 두 요소로 된 한 인간을 의미한다. 한 인간 안에 이원화된 두 개의 개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체 혹은 영혼에 대한 한편 강조의 정신성은 한 인간 안에 있는 이 두 요소를 이원화시키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이원화의 경향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무가치하며 문제만을 일으키는 도구요 통로로 생각하는 사상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마가렛 케인(M. Kane)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해에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요소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복음주의의 인간 이해에 영혼은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체와 유물론적 요소들은 항상 경계되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한다.¹³⁾

보쉬(Bosch)에 의해서도 복음주의의 그러한 경향은 지적되고 있다. 그는 에큐메니컬 선교 이해를 설명하면서 에큐메니컬 입장은 복음주의가 가진 이원론적인 면들을



없애기 위한 시도들 중에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한 요소를 포함시켰다고 했다.¹⁴⁾ 보쉬의 이러한 지적에는 복음주의의 선교 신학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는 요소가 강했다는 것과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그러한 복음주의의 이원론적 요소를 가능한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영혼에 강조를 두는 복음주의의 한편 강조의 경향 위에 있는 정신성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영적 문제 외에는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상태를 잘못으로 이끌어 나가는 통로로 생각하여 가능한 관심 밖의 문제로 두려는 경향은 자연히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인 현상 내지 부정적으로 접근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서 복음주의의 이러한 경향은 크리스천이 사회문제에 개입할 때마다 세상의 죄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B. 내세는 영광스럽고 중요하나 현세는 속되고 무의미하다는 이해

복음주의가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다른 하나의 요소는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내세에만 관심을 두는 가르침이다.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에는 내세의 소망이 필요하다. 내세의 소망은 오늘을 담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에 살면서 내세만을 강조하는 정신성은 현실을 피해 나가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중요한 내세와 속되고 무의미한 현세에 대한 이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보쉬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중요하지 않다”¹⁵⁾고 지적한다.

13) Kane, M., *Theology in an Industrial Society* (London : SCM Press, 1975), pp. 31f.

14) Bosch, D. J., *op.cit.*, p. 35.

15) *Ibid.*, p. 207.



128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사실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한 경향은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금욕주의와 타계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혼자서 금식기도를 오랫동안 하거나 새벽기도에서 긴 시간 기도하며 성경을 통독하거나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면 이것은 성도가 내세 지향이 되고 더욱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다.¹⁶⁾ 크리스천에게 이러한 삶은 중요하다. 이러한 삶을 외면하고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도피나 내세만을 위한 삶의 양식(樣式)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한편 강조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편 강조에는 문화적 책임이나 사회 속에서 능동적인 봉사의 삶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한국 교회 내에는 이러한 의식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의식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전래시킨 현상이기도 하다. 특별히 초기의 선교사들은 경건주의자들이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부분이 전천년설 신봉자들이었다. 손봉호 교수는 민경배 교수가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가졌던 신학 사상들을 평가하여 사회 부재의 영혼 구원, 정치무관의 정숙주의, 그리고 이원적인 전제를 가졌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관찰한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서 그러한 요소들이 한국 교회의 내세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로 파악했다.¹⁷⁾

스펜스 팔머(S. Palmer) 역시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선교사들을 청교도적 열심과 웨슬레적인 정열의 바탕 위에 놓여진 사람들로 보면서 성경관은 철저히 보수적이었고 내세 지향이 강한 전천년설을 지지했고, 세례는 엄격한 교리문답공부 이후에 시행했으며 안식일 엄수를 명했으며, 엄한 권징을 이행했으며, 전도에 열심한 나머지 기독교 신학의 사회적 적응에는 냉담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한다.¹⁸⁾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은 한국 교회와 무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지닌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에 대한 이해, 즉 한국 교회의

16) 나용화, “복음주의적 성화의 윤리”, 『성경과 신학』(서울: 도서출판 랫불, 1996), p. 103.

17) 손봉호, *op.cit.*, p. 383.

18) Palmer, S., *Korea and Christianity* (Seoul: Hollym Corporation, 1967), p. 19.

천국사상에는 항상 그것의 현재성보다는 미래성에 강조를 두었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까지 내세를 강하게 동경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서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속한 장소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책임에 부정적이나 소극적인 자세 안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쳐 왔다.

C. 개인에 대한 강조로 단체의 책임에 소홀한 이해

복음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개인 영혼에 대한 강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윤리 실천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복음주의의 이러한 경향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는 것으로, 로마 교회가 집단개종을 통하여 명목상의 신자들을 양산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개인적인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¹⁹⁾ 이러한 개인 영혼의 변화에 대한 강조는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개인의 삶에 보다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도 집단에 의한 방법보다는 심령에 변화를 받은 개인에 의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수밖에 없다.

사실에 있어서 회심의 개인적인 요소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개인성의 강조가 사회적인 책임에도 개인성으로 진전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강조는 바른 전체 위에서 반드시 옳은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성경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가르치는가 하면 단체의 책임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 측면, 즉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들을 기록하고 있다. 만일에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만을 강조하여 균형 있는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한편 강조에 해당하며, 나아가서 그러한 개인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곳에는 단체의 책임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

19) 전호진, "선교적 관점에서 본 복음주의 역사와 선교운동", 『성경과 신학』(서울: 도서출판 햇빛, 1996), p. 158.



130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특별히 변천하는 시대적 흐름은 대중적 윤리와 책임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옛날과 달라졌고,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란 것도 사회제도란 조직 때문에 사회윤리의 다른 점이라 하겠다. 오늘날 사회윤리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사회제도란 새로운 힘의 재발견, 사회제도의 세속화, 그리고 사회제도도 윤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²⁰⁾ 이렇게 공동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윤리적인 책임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오늘의 사회문제에 포괄적인 접근과 대처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세 가지의 한편 강조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회활동에 눈을 감고 세상을 통과하도록 하는 정신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성은 영적인 일만을 위해 있는 교회가 사회문제에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는 자세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헨튼(H. L. Fenton)은 복음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사회관계에 강한 강조를 두게 되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 이차적인 중요성밖에 없는 것에 부적당한 강조를 두게 된다”²¹⁾고 생각한 결과라고 말한다.

복음주의 신앙이 영적 문제에만 주된 관심을 두는 한편 강조의 정신성은 또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개입되다 보면 파수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사회문제를 경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헨튼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복음주의 집단에 있어서 확실히 가장 두려운 사실은 어떤 새로운 강조를 하다가 이 강조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와,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제시해 주는 근본적인 우리의 선교로부터 떠나 버릴까”²²⁾ 하는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20) 손봉호, *op. cit.*, p. 528.

21) Fenton, H. L., “Mission and Social Concern”,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Harold Lindsell(ed.) (“선교와 사회관계”, 『기독교의 세계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7, pp. 204f).

22) *Ibid.*, p. 204.

나아가서 복음주의 신앙이 영혼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 이원론적인 한편 강조의 정신성은 사회문제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비관론적 자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회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단정을 미리 내리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헛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헨튼의 계속적인 지적에 의하면,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문제에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의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있다”²³⁾는 선입관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타당함을 다소라도 인정한다면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음주의 교회가 현세에서 기독 신자의 책임 면을 약화시키고 내세에 대한 동경을 강화했으며, 영적인 요소를 물질적 요소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영적인 차원만을 중요시하였고, 그리고 개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강조가 단체의 책임성을 약화시킨 한편 강조는 인간의 전체적인 삶과 현실을 간과케 하는 약점을 표출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IV. 개혁주의는 모든 면에서 복음주의와 일치하는가?

개혁주의의 하수위

지금까지 복음주의의 사회책임에 대한 경향들을 고찰했다. 복음주의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면 복음주의는 모든 면에서 개혁주의와 일치하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혁주의도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복음주의와 일치하는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는 신학의 전체적인 면에서 크게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혁주의의 근본사상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논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유신론(有神論)이며, 주관적으로는 가장 순수하고 고상한 종교이며, 구원론적으로는 복음주의이다.²⁴⁾ 이러한 지적에 의

23) *Ibid.*, p. 205.

24)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 『신학사전』(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학회, 1978), p. 23.



132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하면 개혁주의는 기독교 구원론의 맥락에서 복음주의와 같은 토대 위에서 있다. 여기 개혁주의 신학이 표명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복음주의 요소를 띠고 있다는 것은 칼빈의 5대 교리에 기초한 구원론 - ①인간의 전적부패, ②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③제한된 구속, ④불가항력적 은혜, ⑤성도의 견인 - 에서 특별히 복음주의와 맥락을 같이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화란에 있어서 복음주의 운동은 칼빈주의의 배경에서 크게 그 위력을 떨쳤다고 하는²⁵⁾ 사실도 개혁주의는 구원론에 있어서 복음주의의 흐름을 함께 타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개혁주의의 특징을 모든 분야에서 그대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가 개혁주의의 특별한 강조로서 하나님의 주권원리, 즉 신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과학, 예술 등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확립하는 원리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김의환 교수는 “개혁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일반은총(Common Grace)의 교리를 특별은총(Special Grace)과 함께 중요시하고 있다”²⁶⁾고 함으로 복음주의의 강조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로버트 웨버 역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강조점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과적으로 대중적 복음주의는 개혁주의 유산에서 이탈된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의 운동으로서 복음주의가 역사적 신앙을 잘 나타내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의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정반대의 국면인 잊혀져 온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많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²⁷⁾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는 공통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을 공유하지만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더욱 강조하면서 그러한

25)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사전』(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p. 205.

26) 김의환,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적 조명과 선교적 전망”, 『성경과 신학』(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p. 11.

27) Weber, R., *op.cit.*, p. 27.

강조를 복음주의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문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당연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이 역사적으로 보다 더 정착된 곳에서 연구의 기회를 가지면서 개혁주의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보다 삶의 전 영역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강조하며 생활화하는 면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관심은 오늘의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이 주요 관심으로 다루는 사회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이 시행되도록 봉사하는 도구로서 나타나려면 사회의 제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며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그것이 관심으로 삼는 사회문제의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접근의 방법론이 아니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사회문제의 대상 선정에 더욱 폭넓은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론을 성경적 토대 위에 굳게 세움으로 에큐메니컬 신학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을 정착시켜 온 교회들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와 사회문제들을 교회가 꺼안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혁교회들은 강한 복음주의의 전통, 특별히 문화적인 면 위에서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주권 시행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입장은 단지 문화적인 면을 넘어서서 사회문제의 대처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손봉호 교수는 “개혁주의 정신은 장로교 신학의 근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해방 후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칼빈 신학교를 통하여 화란의 신학과 접하게 되고 거기서 많이 연구되어진 개혁주의를 소개받았다”²⁸⁾고 지적한다. 허순길 교수는 “근래에 막연한 복음주의 개념이 교회에 파고들어 자리잡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28) 손봉호, *op.cit.*, p. 387.

134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다”²⁹⁾고 함으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모든 면에서 동일시 볼 수 없음을 시사하면서 아울러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들도 개혁주의 신앙과 삶에 온전한 정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재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적인 교회와 신학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한 청교도적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일한 불변의 전통으로 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은 개혁주의라는 개념에 상처되는 생각이다”³⁰⁾라고 함으로 개혁주의와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암시하고 있다. 전호진 교수 역시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초기에 개혁주의라기 보다는 복음주의”³¹⁾로 보는 것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주의가 특색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하는 관심은 복음주의 안에 동일한 관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 틀림없다. 나아가서 이 사실은 한국 개혁주의 교회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복음주의의 정신성 안에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주의의 정신성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맞서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V.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주의 정신성

개혁주의 학술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무오한 권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강조 위에서 복음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개혁주의 교회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또 다른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주의의 특징은 사회문제에 보다 적극성을 띠

29) 허순길, “개혁주의 교회와 고신교회”, 『월간고신』(1994년 9월호), p. 40.

30) 김영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적 방향”, 『개혁신학, 한국교회, 한국신학』(서울: 도서출판 대학촌, 1991), p. 217.

31) 전호진, “선교적 관점에서 본 복음주의 역사와 선교운동”, 『성경과 신학』(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p. 166.

는 정신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개혁주의 정신성을 몇 가지로 고찰한다. 이미 위에서 복음주의가 사회책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영향을 미친 정신성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개혁주의의 이해는 어떠한가를 정리해 본다.

A. 영혼과 육체로 된 인간의 전인적 삶에 대한 강조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영과 육으로 설명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마 10:28, 전 12:7, 고전 5:3,5). 그러나 한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서, 크리스천이 나누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로서 바라볼 때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로 되어 나타나는 인간을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혁주의는 인간의 전인적 삶을 강조하는 정신성을 가진다.

칼빈의 신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인적 인간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할 때 루터와의 차이를 만들었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justitia originalis*), 즉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함 같은 요소에만 제한된 것으로 이해했으나, 칼빈은 인간의 지각과 마음, 육체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순전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³²⁾ 사실에 있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이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감정을 이성에게 순응시키고 일체 감각을 바른 질서로 조정되어 또 진실로 조물주의 비상한 은사들 때문에 자기가 우월하게 되었다는 순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제 일차적 좌소는 정신과 심정 가운데 있고 모든 영혼과 그의 여러 능력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어느 부분에도 그 영광이 얼마만큼이라도 비추이지

32) 이수영, “칼빈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개혁신학, 한국교회, 한국신학』(서울: 도서출판 대학촌, 1991), p. 41.

않은 곳은 없었다 (기독교 강요 : I, xv, 3).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의 인간론은 이분설이나 삼분설로 설명되기보다는 단일적이며 전체성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나아가서 영혼과 육체는 반립적이 아니고 보완적이며 그리고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다. 신약 역시 인간은 전인으로 보여지는데, 영, 혼, 육(살전 5 : 23)의 구분도 인간에 대한 삼분설의 내용이라고 하기보다 외적 내적인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온전히 성화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전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삼분설을 지지하는 가르침이기보다는 “전인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의미중첩적인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영혼이 우세하고 육체는 열등한 것으로 보는 헬라적인 이원론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며, 성경은 인간을 전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고 있다.³³⁾

만일에 한 인간의 삶을 영과 육으로 이원화시켜서 설명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한 인간의 잘못된 삶의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다. 한 인간의 죄악을 영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오직 육체의 책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나아가서 영혼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며 육체는 덜 중요하다고 이해할 때에 육체를 보다 쉽게 내어 굴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의 주가 되신다는 이해가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이해 위에서 주가 되신다면 어느 부분의 주가 되신다는 것인가?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인간을 이해할 때에 파생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이 정착된 상황에서의 인간이해는 이원론적 인간이해에 머물지 않는다. 벨카워(G. C. Berkouwer)는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언급들이 ‘전인’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한다. 그는 성경이 결코 인간을 이원론 혹은 다원론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것의 다양한 모든 표현 안에서 전인이 앞에 나타난다고 했다.³⁴⁾ 그리고 계속 언급하기를 보다 높은 부분으로서 영혼과 낮은 부분으로서

33) 유해무, 「개혁교의학」(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p. 250~251.

육체로 나누는 것은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성경적인 인간관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자리할 곳이 없음을 지적했다.³⁴⁾

개혁주의의 이러한 인간이해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을 영적인 필요 안에 있는 존재로 봄과 동시에 그의 삶의 상황과 처지를 놓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필요한 인간을 보면서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을 두 측면에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만나는 균형 잡힌 관계성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인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또한 인간은 중요하나 사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도식을 만들 수 없게 한다. 인간을 영적인 실체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실체와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함께 파악하는 정신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을 보며 동시에 인간을 둘러싼 상황을 함께 보는 눈을 가지도록 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B.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균형 있는 가르침

기독교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의 본질은 내세에서 나온다. 내세에 대한 소망은 또한 현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성경은 기독교신자의 현실적인 삶에 있는 장애물들에 대하여 인내를 가르치면서 내세의 소망을 일깨워 주고 있다 (고후 1:1~14, 4:17~18, 갈 6:8~10, 빌 3:10~14, 살전 5:1~28, 살후 1:3~12 등). 이처럼 기독교신자에게 있어서 내세는 소망의 핵심이며 현실적인 삶을 참되고 바르게 이끌어 주는 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교회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려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세계로의 소망이란 도구를 통하여 모든 불순한 동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정확하다.³⁵⁾ 따라서 내세를 현실에 그리고 현실을 내세

34) Berkouwer, G. C.,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72), p. 201.

35) *Ibid.*, p. 203.

36) 손봉호, *op.cit.*, p. 385.



138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에 관련시켜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 두 극단적 현상에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졌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해무 교수에 의면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는 탈세적이므로 세상성을 피하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도 19세기적인 낙관론의 모습을 한 보수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존속하고”³⁷⁾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 극단적 흐름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신앙은 삶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내세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내세를 무시하고 현실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내세를 무시하고 현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을 낙관적인 이상론 안에서만 바라보게 되어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등장했던 사회복음의 현상과 같은 사상을 재현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위에 이상적 세계를 건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헛된 야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실에서 내세만을 강조하는 정신성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과제들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직면케 하는 요인이 된다. 현실에서 내세만의 강조는 단순히 내세 지향의 삶을 수반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영향을 파급한다. 내세에만 기울어진 사상은 “그것과 함께 모든 가치의 상대화, 새로운 가치의 도입을 일으킨다.”³⁸⁾ 다시 말하면 내세에만 강조를 두는 사상은 현실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현실에서의 무책임한 자세를 합리화시키는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여 당하는 모든 폐단과 결과들을 내세와 관련시켜 스스로 위로를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성이 확대될 때 당연히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사회적인 책임감이 자리잡을 곳이 없으며, 사회문제 앞에서 불구경하는 방관자가 되고 만다.

개혁주의 신앙은 내세만을 강조할 수 없는 신학적 배경을 가진다. 이것은 개혁주의의 신학이 현실의 개혁을 통하여 이어지는 세계가 내세로 승화된다는 믿음을 가짐에서도 아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히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음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개혁주의 신학은 현실의 개혁에 뒤따라오는 내세를 기대하여 오늘에

37) 유해무, *op.cit.*, p. 45.

38) 손봉호, *op.cit.*, pp. 380f.



관심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내세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삶의 양식(modality)으로서 세상에 관심을 쏟으며 살도록 가르친다. 악이 극대화 되어 가는 세상,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세상임을 알면서도, 오늘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으로서의 삶의 양식(樣式)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의 사회관심은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는 세상을 돌이켜 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연적 책임 때문이라기보다는 크리스천의 삶의 양식 그 자체이다. 내세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하는 삶의 양식 자체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피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이 현실을 사는 과정에서 인간의 최대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 이것은 곧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존재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다 아멘”(롬 11:36).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삼중으로 강조한다. 크리스천의 존재의 원인도,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삼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지금의 삶의 현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주의 삶의 원리는 현실에 무관심할 수 없는 삶을 일으킨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지닌 삶을 매일 살게 된다. 여기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크리스천의 사회책임이 당연히 포함한다. 크리스천에게 오늘의 삶은 그가 놓여진 상황과 그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세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준비하실 곳이며(요 14:3), 성도는 그것을 오직 유업으로 받으나(고후 5:1, 벧후 3:12~13), 현실에 있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사는 의미와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빛나는 미래의 소망은 크리스천이 오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상의 삶과 그러한 삶의 양식(樣式)을 따르는 데 깊은 도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C.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主) 되심에 대한 강조

개혁주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 따라서 주님은 내세의 주님만 아니라 현세의 주님이시며, 영적인 세계와 아울러 물질적인 세계의 주인이시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은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및 통치권으로서 수직적이며 수평적 차원을 가지며,³⁹⁾ 그것은 교회의 차원을 넘어선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⁴⁰⁾ 이러한 배경에서 그리스도는 성도와 교회의 머리이며 주인인 동시에 우주의 주관자이시다.⁴¹⁾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것으로(마 28 : 18) 말하며,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주님의 발아래 복종케 하시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을 가르친다(엡 1 : 22).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 : 10)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나 교회만일 수 없는 우주적 차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차원이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신정적(神政的), 메시아적, 동력적, 영적, 구속적,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주권이 시행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 이러한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차원이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실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시녀”, “하나님 나라의 병기”, 그리고 “하

39) Verkuyl, J., “The Biblical Notion of Kingdo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C. Van Engen, D. S. Gilliland and P. Pierson (ed.) (New York : Orbis Books, 1993), p. 73.

40) Van der Walt, B. J., *The Liberating Message*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1994), p. 308.

41) Heyns, J. A., *The Church* (Pretoria : N.G.Kerkboekhandel, 1980), pp. 50~51.

나눔 나라의 표지(sign)"⁴²로서 존재하며 사역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의 이러한 이해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멸망 받을 대상으로만 고정시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지 않는다. 우주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실질적인 복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시녀들이 성실하게 사역해야 할 현장이며 그 속에 있는 사역의 과제들이었다.

이러한 정신성 위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는 사회 관심을 피할 수 없다. 개혁교회에 있어서 사회 관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표현이다. 이러한 이해는 믿음과 봉사의 삶에 바른 균형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선교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최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VI. 결 론

한국 교회가 오늘의 우리사회에 영향력이 있는가? 라는 소리가 높아간다. 참으로 교회가 사회 속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학적인 자성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여러 요인들 중에는 교회가 사회 관심을 교회의 삶 속에서 약화시켜 왔던 이유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의 원인은 또한 교회가 사회활동을 외면하도록 영향을 미친 복음주의 신학의 한 경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하는 신학적인 정신성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삶의 전체적인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실현에 대한 강조점에서 복음주의와 차이가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사회관심과 신앙은 두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로 접목되어져 하나님의 왕권이 전인(the whole man)위에, 그리고 내세뿐만 아니라 현실

42) Van der Walt, B. J., Anatomy of Reformation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1981), p. 327, 324, 295, 296.



142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에도 우주적으로 시행되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정신성 위에서 개혁교회들은 어두움이 더욱 짙어지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여 찾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정신성은 기독교 선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눈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적 사역 위에 전인치유를 위한 선교의 방법과 삶의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시행되게 하는 선교의 목적을 수행하는 선교관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복음전도를 중심적 사역으로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폭 넓은 총체적 사역들을 복음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적 방법으로 전인 치유와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속으로 인도하는 선교관은 사회활동에 대한 개혁주의의 정신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참 고 문 헌

- 김영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적 방향”, 개혁신학, 한국교회, 한국신학, 서울: 도서출판 대학촌, 1991.
-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사전,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 김의환,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적 조명과 선교적 전망”, 성경과 신학,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 나용화, “복음주의적 성화의 윤리”, 성경과 신학,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 지성, 성광문화사, 1978.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 신학사전,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 이수영, “칼빈신학의 특징과 한국신학”, 개혁신학, 한국교회, 한국신학, 서울: 도서출판 대학촌, 1991.
- 전호진, “에큐메니컬 운동과 선교론 비판”, 개혁신학 제IV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 1978.
- 전호진, 선교적 관점에서 본 복음주의 역사와 선교운동, 성경과 신학,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6.
- 허순길, “개혁주의교회와 교신교회”, 월간교신 9월호, 1994.
- Berkouwer, G.C., *A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72.
- Bosch, D.J.,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 Castro, E., Editorial,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64, 1975.
- Fenton, H. L., 1967, “Mission and Social Concern”,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1975.
- Harold Lindsell(ed.) (“선교와 사회관계”, 기독교의 세계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 Fowler, S.,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Society*, Potchefstroom,



144 선교신학과 선교 이슈

Potchefstroom University, 1988.

Henry, C. F. H., *Aspects of Christian Social Ethics*, Grand Rapids : Eerdmans, 1964.

Hesselink, J., *On Being Reformed :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Grand Rapids : The Reformed Church Press, 1994 (최덕성 역, 개혁주의 전통,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Heyns, J. A., *The Church*, Pretoria : N.G.Kerkboekhandel, 1980.

Kane, M., *Theology in an Industrial Society*, London : SCM Press, 1975.

Palmer, S., *Korea and Christianity*, Seoul : Hollym Corporation, 1967.

Rauschenbusch, W., *Christianity and Social Crisis*, New York : Harper and Row, 1964.

"Salvation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Review Mission*, Vol. 62, 1973.

Van der Walt, B. J., *The Liberating Message*,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1994.

Van der Walt, B. J., *Anatomy of Reformation*, Potchefstroom University, 1981.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Verkuyt, J., "The Biblical Notion of Kingdo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1993.

C. Van Engen, D. S. Gilliland and P. Pierson(ed.), New York : Orbis Books.

Weber, R.,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권혁봉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3).